

현실과 괴리된 POTRA 설립추진

지자체 주도 전국 6개 무역회사 모두 실패

포천시는 지역현실과 맞지 않는 포천종합무역(POTRA)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시는 포트라 설립을 위해 지난 3월 맥스경영컨설팅(주)에 '설립타당성 용역'을 의뢰하고 지난 13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용역보고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용역을 의뢰받은 맥스경영컨설팅(주)는 관계자는 "포천시 제조업체는 2000년에 비해 2004년은 업체당 평균 부가가치 생산액은 5%가 감소했다"면서 "이는 포천관내 영세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KOTRA), 무역협회 등과 업무가 중복된다"면서 "포천관내 기업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수출지원기관의 지원사업과 맞지 않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최근 경남무역과 전남무역 등 광역지방자치 단체가 설립한 6개 무역회사들이 대부분 적자에 시달리거나 청산 절차를 거쳐 완전 철수했다"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부천무역개발은 설립취지와 달리 무역업무를 중단하고 시설관리 업무를

용역업체, "포천기업 수출지원 사업과 맞지 않는다"



포천시는 포트라 설립을 위해 지난 3월 맥스경영컨설팅(주)에 '설립타당성 용역'을 의뢰하고 지난 13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용역보고 설명회를 가졌다.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외견상 건실한 운영상태를 보이는 4개 지방자치단체들도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압박요인 및 관리, 감독부실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지적하고 "포천시 관내 제조업체들 대부분은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을 활용할만한 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대다수"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업체 관계자는 "포트라를 설립한다면 무역관련 경험이 있는 무역업체와 제휴를 통해 2~3년 간 운영한 뒤 관내 기업의 수출입규모와 인프라 구축 등 여건을

갖추어 제3섹터 방식의 주식회사형태의 포트라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와 같은 용역업체 설명을 청취한 뒤 박윤국 포천시장은 "관내 수출입을 하는 제조업체들은 전문 인력이 없어 애로사항을 겪고있다"면서 "이들 기업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라도 포트라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시장은 "포트라는 성공할 수 있다. (포트라 자체) 수익이나 (수출입 업체)지원이나와 관계없이 포트라를 설립해야 한다"면서 용역업체 관계자에게 "단순히 수익구조만 계산하면 출범할 수 없다. (포트라)설립 추진 방법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시에 따르면 포트라가 설립되면 ▶수출 유관기관 정보제공, 무역상담회 개최 등 무역관련 정책 지원 ▶디지털 카탈로그 및 e-book 제작, 인터넷 무역 전문인력 양성 등 전자무역 상용화 ▶수출입 업무 총괄 등 무역업무 대행 ▶특허 관련 업체 보호,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등 기업경쟁력 강화 ▶자매, 우호도시 내 상품전시장 설립 등 상품판매 네트워크 구축 등 5개 분야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하승민 기자 form66@paran.com

탐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77 이동맛갈비공장

전통요리법 이용한 양질의 갈비생산



대표 박병식

뉴우질랜드산 최상품 소갈비를 수입상을 통해 공급받아 갖은 천연양념과 독창적인 노하우로 숙성, 깨끗한 위생시설로 누구나 선호하는 양질의 갈비를 생산해 전국에 공급하고 있는 이동맛갈비공장(포천시 이동면 연곡5리 대표: 박병식). 정직과 신용을 모토로 "제대로 된 갈비"를 생산하고 있는 이동맛갈비공장은 지난 2001년부터 창업을 앞두고 건강식이면서도 감칠맛 나는 갈비 만들기를,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이듬해 1월에 창업해 애오라지 우수한 갈비만을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고, 고객 누구나 인정하는 갈비를 생산해 공급하기에 이르렀다.

이동맛갈비공장이 타업체와 차별화된 것은 요리방법에서부터 남 다르다. 무우, 대파, 배춧잎 등 여러가지 재료를 적당한 비율로 맞춰 오랜 시간 쪄 고은 다음 찌꺼기를 깨끗하게 제거한후 우리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천연 생양념을 첨가해 냉장실에서 일정시간 동안 숙성시켜 냉장갈비와 냉동갈비로 주문한 고객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인근 이동지역과 강원도를 비롯해 전지역에서 이동맛갈비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갈비를 주문하면 택배로 받아 맛볼 수 있도록 위생 진공 포장까지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이런 철저한 공정을 거쳐 지금까지 갈비를 공급하면서 제품이 변질되거나 하자가 발생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박 대표는 자부한다.

최근에는 직접 갈비맛을 본 고객들을 통해 주문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는 오랜 세월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박 대표의 진실과 정직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듯 싶다. 박 대표는 이동지역에서 전 삼백평경도의 논을 경작해 수확한 쌀을 어려운 이웃과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오랜기간 동안 선물을 품소 실천해온 것으로도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박 대표는 "현재 군에서 지급받는 연금과 공장에서 나오는 일정 금액으로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으며 앞으

정직과 신용을 모토로 고객의 입맛에 맞는 갈비생산 전국 어느 곳에서도 신속, 정확, 안전하게 택배 가능

전통과 경력 등 모든 것이 타 업체에 비해 열악하지만 양심을 최우선으로 하는 박 대표의 응고집으로 생산되고 있는 갈비는 고객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찾는 고객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음식은 정성과 양심이다"라는 마인드 아래 위생적이면서 독창적인 맛을 내는 갈비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박씨는 건강상의 문제로 지난 26년간 몸 담았던 군생활을 마감하고, 타고 난 음식솜씨를 자랑하고 있는 부인 김정자여사의 권유로 이동맛갈비공장을 시작하게 됐다. 이동맛갈비공장은 기존의 방식에다가 시간과 정성을 추가해 누구나 선호하는 갈비만을 생산한다는 야심찬 계획아래 시작한 것이다.

로도 어려운 이웃이나 독거노인 등을 위해 봉사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것을 강조했다.

얼마전 이동면에 소재하고 있는 갈비공장에서 폭리를 취하기 위해 순수 갈비를 사용하지 않고 식품용 접착제를 사용해 갈비에 갈비살 외에 다른 고기를 붙여 유통하다가 적발되어 언론매체에서 크게 보도된 적이 있다. 이것은 두 년간 쌓아온 이동갈비의 명성이 큰 타격을 주었다. 가뜰이나 어려운 이동지역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이 부른 결과로 이동갈비가 옛 명성을 되찾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정직과 신용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박 대표의 신념으로 이동맛갈비공장이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거라 기대해 본다.

문의 (031) 532-1653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이동맛갈비공장은 뉴우질랜드산 최상품 소갈비를 수입상을 통해 공급받아 갖은 천연양념과 독창적인 노하우로 숙성, 깨끗한 위생시설로 누구나 선호하는 양질의 갈비를 생산해 전국에 공급하고 있다.

2006년 교육계지도층 인사 연찬회

한국산업안전공단 학교안전교육 연찬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원장 俞載三)은 지난 15일 구리남양주교육청 대강당(3층)에서 구리, 남양주시 소재 49개교 초·중·고등학교 교장 및 장학사 등 교육계 지도층 11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의 중요성과 학교안전교육 조기정착을 위하여 교육계 지도층 인사연찬회를 개최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은 지난 15일 구리남양주교육청 대강당(3층)에서 안전교육의 중요성과 학교안전교육 조기정착을 위하여 교육계 지도층 인사연찬회를 개최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장은 인사말에서 "체계적인 학교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학교안전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정성을 당부했다.

구리남양주교육청 김희택 교육장의 격려사와 도심초등학교 이은정 교사의 '학교안전교육 성공사례 발표'에 이어 前 한국기독교교육대학교 문형남 총장의 '학교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주제로 특별강연도 실시

했다.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교육계 지도층 인사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제주도에 포천쌀 직거래 판매 개시

이제 포천쌀이 제주도 주민들의 밥상에도 오르게 됐다. 포천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7일, 20kg짜리 포천쌀 200포를 제주도 삼도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배송했다. 이 쌀은 삼도동 주민들에게 직거래로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포천쌀 제주도 직거래는, 지난해 자매결연을 맺은 포천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광근)와 제주도 삼도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강현치) 간의 '지역특산물 교환판매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양 주민자치위원회는 올 3월 31일 제주도 삼도동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남을 갖고 ▶지역특산물 교환판매 ▶홈스테이 추진 ▶양 지자체 홈페이지 내 자매결연지 알릴방 개시 등 3개 항목에 합의했다.

박광근 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이번 포천쌀 제주도 직거래가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포천쌀 판매에 계속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일이 가능하도록 협력한 제주도 삼도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광남 기자 varanasise@naver.com

사제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세금계산서 수취때 유의사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때에는 아래의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위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및 폐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일반과세자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is.go.kr)에서 '사업자과세유형 휴 폐업 조회'를 클릭하여 본인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장 가공세금계산서를 수령할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장세금계산서"란 물건을 사오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말하며, '가공세금계산서'란 물건을 사오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산업안전사고 예방

지게차 포크위에서 고소작업 중 추락

재해발생 개요는 원자재 창고 내에서 적치대에 쌓여 있는 원자재에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 지게차 포크를 높이 4.9m까지 올린 상태에서 재해자가 포크 위로 올라가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이다.



재해발생상황도

재해발생 원인으로서는 지게차로 화물의 적재 및 하역 등 주용도의 고소작업에 사용하여 추락재해의 위험이 있었고,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을 하는 때에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미착용 하였으며 지게차를 이용한 고소작업은 금지되어 안전난간이 부착된 전용운반구 사용시에만 고소작업을 하여야 했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국민연금 Q&A 미납보험료 때문에 유족·장애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는데

체납기간이 전체기간의 3분의 1 넘으면 제한

근로자에게 회사 체납내역 공단이 알려줘야... 체납회사 나중에 큰 손해

국민연금을 장기간 체납했을 경우 그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것 외에 완치 또는 2년 경과시점에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입기간의 3분의 2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된다.

따라서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이 전체가입기간의 3분의 1 이상이면 장애연금 지급은 당연히 제한된다. 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는 제외된다.

이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연금에 연금을 지급하는 유족연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 대부분이 이러한 체납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가입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단은 해당 가입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여 알려주고 있다.

급여에서 연금보험료(기여금)가 원천 공제됐음에도 회사에서 체납한 경우 이때 체납사실통지서 하단에 있는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에 사용자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체납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최근 체납으로 인해 장애연금이 인정되지 않은 가입자가용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일부 승소했다. 사용주는 근로자를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고는 하지 않고, 보험료를 체

납하여 연금을 받을 수 없게 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근로자도 가입을 거부하여 발생한 손해의 일부만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계약직 사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15개월 회사분 67만원을 내지 않아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사건과 관련하여 1억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측 주장에 대하여 '본인이 인사 당시 국민연금 가입을 거부했고 회사도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시키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양측에 모두 책임이 있다. 회사측에게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바 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의정부지사 031-877-5662